

## 새 圖書館의 건설을

李 萬 甲  
(도 서 관 장)

圖書館이 冠岳山으로 이동한지도 벌써 7개월이 되고 있다. 이동 전후 약 1년간 우리 圖書館 직원의 勞苦는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추운 겨울에 書庫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책을 하나하나 點檢하고 包裝을 했다. 出退勤과 食事 其他가 여의치 못한 冠岳山에 다른 기관보다 한달 먼저 와서 집을 나르고 分館에서 서적과 집기를 인수 통합하였으며 景福宮 창고에서 數十年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한 奎章閣冊板을 옮겨서 묵은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그 많은 서적을 배열하고 카드를 정리하는데 지금까지 골몰하여 왔다. 그 勞苦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무사히 끝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은 이제부터 이다. 建物도 엄청나게 커졌지만 機構도 커졌다. 利用者의 數도 전에 비해서 많아졌다. 하루에 3·4천명이나 되는 利用者가 出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圖書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늘었고 그대신 要求도 여간 많아지지 않았다. 그 기대와 요구를 받아서 利用者에게 필요한 學問的 情報를 신속하게 또 친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할만큼 條件이 갖추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우리 圖書館이 名實共히 研究圖書館으로서 제구실을 하려면 우선 圖書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資料가 풍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必要한 자료는 거의 없다고 말을 들을만큼 자료가 빈약해서는 冊床椅子만 이용하는 곳이지 圖書를 이용하는 圖書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圖書費를 대폭 늘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긴급

한 일이다.

그리고 수집한 도서를 신속 정확히 정리하는 것도 여간 긴요하지 않다. 앞으로 급속히 증가할 도서의 정리도 문제이겠지만 지금 있는 도서가 옹게 정리되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各 分館에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同一시스템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바람직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여 利用者에게 적지않게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유니온·카탈로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적절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能力있는 圖書館員을 확보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機械化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業務의 컴퓨터化는 그 중의 가장 긴요한 것의 하나이지만 貸出에 있어서 또 整理에 있어서 機械化가 달성되지 않고는 많은 자료와 많은 利用者를 원활하게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圖書館報는 새 圖書館을 꾸미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館報이다. 지금까지는 圖書館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館報도 별로 읽혀지지 못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부터는 더 읽혀질 것이고 또 읽혀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圖書館과 利用者를 연결하는 훌륭한 미디어로서 적절한 內容을 담아야 한다. 이번 館報가 그런 點에서 얼마나 충실을 기했는지 우리 스스로 알기 어려우나 아무쪼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좋은 館報를 내도록 다짐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